

# 50회 울전 워크샵 조명 인수인계서

김나연 김병민 염창훈 장지호

\*노트북 분실로 인하여 상세한 자료가 모두 날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인계서가 미흡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0. 용어 설명

- 이전 116회 대공연 인수인계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조명 제반사항 확인하기

- 공연 준비에 앞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조명기기(대파, 엘립), 라인의 갯수와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되지않는 조명기기와 라인에 대해서는 수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기본적으로 전선이 끊겨있는 부분을 다시 이어주는 원리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할 줄 아는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방법은 꼭 모든 조명팀이 공연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공연 당일 조명기기에 문제가 생겼을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무대 디자인이 나왔을때 전체조명이 몇개 필요할지 계산해보고 부족하다면 광상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대파 강통과 램프고정틀을 제외한 램프를 주기 때문에 극회동방이나 울전소강당에서 강통을 가져와서 끼워 사용합니다. 대여료는 개당 15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광상지인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 2. 에어리어

- 무대 디자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대에 빛이 모두 묻을수있게 에어리어를 잡습니다. 무대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 대파가 몇개 필요할지, 색조명/엘립은 어느 위치에 필요할지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 3. 큐시트

- 장면별로 어떤 조명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 구상하는 단계로, 처음 대본이 나왔을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대팀과의 상의를 통해 부분조명, 색조명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씬넘버, 내용, 조명효과, 비고 등의 칸을 가진 표를 주로 작성합니다. 여기서 내용부분은 생각보다 상세하게 적어두고, 직전대사를 반드시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공연당일에 큐시트는 많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빈칸을 만들어두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가장 선호되는 것은 캐스트들의 장면연습을 많이 보아서 씬들이 외워져있는 것입니다.
- 큐시트를 작성하다보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캐스트들의 감정변화나 어떤 사소한 것들을 조명으로 효과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명은 극의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튀지 않아야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강렬하기 때문에 잡다한 효과는 오히려 극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 4. 무대철야

- 공연전날 이루어지는 무대철야에서 조명팀은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무대팀 일을 도와 빠르게 무대를 세워야 조명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대 일에 손이 많이 필요하지않을때는 반드시 조명일을 해두어야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파와 엘립, 라인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걸어둔 이후에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미리 해둡니다.

마찬가지로 콘솔도 채널별로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원래 쓰던 콘솔은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사용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모든 채널이 잘 돌아가긴 할 것입니다. 즉 가장 처음에는 콘솔설치 및 기기확인을 합니다.

- 다음으로 조명을 천장에 걸어둡니다. 울전 소강당의 경우 조명을 걸 수 있는 바가 2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명을 배치해서 걸어둘지 먼저 디자인합니다. 앞쪽을 비출 조명과 뒤쪽을 비출 조명을 구분합니다. 조명을 걸기 전에는 고정쇠가 풀어져있도록 합니다.(이후에 위에서 조명기기를 고정시킬때 이미 조여져있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조명은 바를 타서 걸어줘야 합니다. 주로 맨발로 올라가는게 편하고, 옆에 기둥을 잘 잡고 조심히 이동해야합니다. 위에서 일을 하다보면 발에 땀이 나서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파,엘립, 라인을 연결해놓습니다.
- 무대에 바닥과 벽이 생기면 에어리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도면에 그렸던 것처럼 대파와 엘립을 원하는 방향으로 짜지도록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암전을 한 후 하나씩 비추면서 연출과 에어리어를 잡습니다. 이 때 한명은 바 위에서 조명기기를 잡고 만지고 있을 것이고 한명은 콘솔에서 해당 채널들을 켜고 끄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어리어를 잡을때에는 기본적으로 두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작업이 무대팀 작업이 끝난 아침에 이루어지다 보니 많이 피곤한 상태이지만, 같이 으쌰으쌰하는 즐거운 분위기이길 바랍니다.

## 5. 공연당일

- 리허설 전에 뒤깍이를 진행합니다. 뒤깍이란 음향과 함께 큐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뒤깍이를 할 때에는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씬을 하는게 아니라 큐가 있는 씬만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놓은 큐시트도 다 바뀔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펜과 종이를 준비해두고 열심히 받아적으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급하다고 적어두지 못했으면 나중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바쁘면 연출님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잠시 적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 뒤깍이에서는 관객입장, 기획인사, 커튼콜, 관객퇴장까지 연습해보게 됩니다. 대본이외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리허설은 말그대로 공연을 한 번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깍이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 공연당일에도 조명이 터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콘솔을 다루는, 즉 오퍼를 보는 친구 외에도 조명팀이 한명이상 상주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태프진들도 늘 상주하는게 맞지만 수업등의 스케줄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간별로 교대를 해서 2명씩은 늘 상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